



2021년 1월 17일(제1018호) 연중 제2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미사(Missa)”

유서 깊은 성당을 순례할 때면 미사가 봉헌되는 제대 외에 또 다른 제대가 벽에 붙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성당의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대 위로 십자가상이 걸려 있었고, 사제와 신자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1962년~19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님의 백성을 향해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제대가 떨어져 나와 사제와 회중 사이에 놓이게 되었고, 사제와 신자들은 제대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며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미사를 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미사에 참례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하는 신부님의 모습을 보던 것에서, 응답하고 참여하며 함께 전례를 이뤄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사를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종교 행사를 체험(?)하기 위해 이따금 미사에 참례하는 몇몇 해병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미사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는 5분 교리 시간을 이용해서 미사의 본 의미를 강조하곤 합니다.

미사(Missa)란 본디 옛 로마인들이 회의를 마치

고 사용하던 말로, ‘가시오’ 또는 ‘해산’이란 뜻의 폐회를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3세기부터 성찬례에서 모임 해산의 뜻으로 사용되던 미사라는 말이 4세기 이후로 모임 자체, 곧 성찬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5세기부터는 미사가 미시오(missio, ‘사명’이라는 뜻의 라틴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파견’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미사를 통해 말씀과 성체라는 양식을 받아 모시고 영혼에 힘을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당 문을 나섬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봉헌으로 이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 속 안드레아의 이 말이 바로 미사(Missa)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뒤 베드로에게 찾아가 건넨 이 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는 미사에 참례한 뒤에 어떤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이현신(대니얼) 신부  
복룡(해병6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1사무 3,3ㄴ-10.19

### 회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제 2 특 시

1코린 6,13ㄷ-15ㄱ.17-2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 복음

요한 1,35-42

### 영성제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습니다.

#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네 번째 시한

다시 거기서 닻을 올리고 떠나 남경에 가서 닻을 내렸습니다. 남경 시가는 파괴되지 않고 있었으며, 영국인과 중국인들이 강화 조약(즉 남경조약)을 맺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눈앞에 당도한 영국군의 병력과 위협에 중국인들은 대경 실색하여 강화를 청하였던가 봅니다.

황제는 4명의 고관 대작들에게 이 강화 조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여 8월 29일에 강화 회담을 마치고 조약문에 조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고 단정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신부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남경시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있는데, 장교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기에 저도 그들을 따라가서 탑과 시가 전체를 구경하였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남경은 인구가 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평탄하며 두 개의 운하로 구분되어 있고, 도시는 크고 넓지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도시 북쪽에 산(즉 종산)이 있는데, 그곳에 영국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인사(寶印寺)라고 하는 절 가운데 높이가 200척이나 되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과 도금한 돌들로 되어 있고, 그 돌들 위에는 여러 신상(神像)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의 외부는 여러 가지 색깔의 기와로 입혀져 있는데, 그 모양은 팔각형이고, 150개의 작은 종들과 2개의 금구슬이 있고, 그 밖에도 눈에 띄는 등이 12개나 달려 있는데, 이 등들 덕분에 위로는 33천(하늘)을 비추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분간한다고 중국인들은 미신같이 믿고 있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에는 무게가 900근이나 되는 질그릇 단지 두 개와, 천반(天盤) 즉 하늘의 접시라고 하는 450근의 접시가 있습니다. 탑이 광채로 온 세상을 비춘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탑의 기단에는 여러 겹의 둥근 원이 있는데, 그 무게가 3,600근에 달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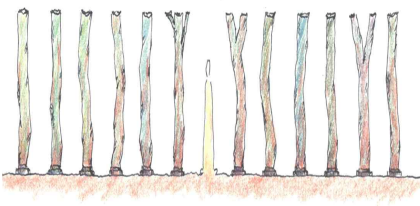
그 밖에도 탑을 다섯 가지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것들은 각각 밤을 비추는 야명주(夜明珠), 비를 쫓는 비수주(備水珠), 화재를 쫓는 비화주(備火珠), 폭풍우를 피하는 비풍주(備風珠), 먼지로부터 탑을 보호해 주는 비진주(備塵珠) 등으로 불립니다. 또 그 밖에 중국인들의 경전 세 권이 보관되어 있는데, 비교(秘敎)의 책인 《장경》(藏經), 기도서인 《아미타불경》(阿彌陀佛經), 부처님 경배 권유서인 《제인불경》(濟人佛經)이라는 것들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상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기둥



모양도, 색도 모두 달라.	당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걸 가져다. 무엇에 쓸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당신의 피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세운 기둥입니다.
하지만, 님께서	듬직하니, 불만합니다.

상화이야기

성진 새를 바치시는 예수님



베드로 성인의 생애를 주제로 한 그림들로 채워진 이 경당은, 27살에 요절한 마사치오가 18살 무렵부터 그린 초기 르네상스 그림들로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그 당시에 발견되고 널리 구현된 원근법을 바탕으로, 또 실제 경당에 창문의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그림 속 빛의 방향이 같아, 당시에는 매우 현실적인 스타일로 그림이 그려졌다.

마사치오, 1424년~1427년 제작  
브란카치 경당, 이탈리아 피렌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볼 그림은 마태오 복음 17장 24절~27절까지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계속된다.

그들이 카피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진 새를 가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진 새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가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나, 아니면 남들에게서나?”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낚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뉘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2주일: 월성대(공군) 진성주 신부

◆ 교구장 동정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서품식  
 때·곳: 1월 18일(월) 14:00, 정동 수도원

◆ ‘군중의 시집’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